

“어른들 모르는 청소년 고민 표현하고 싶었어요”

한국청소년영화제 대상 고흥 녹동고 '칸' 동아리

“어른들이 모르는 청소년의 삶과 고민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1318의 창, 꿈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18회 한국청소년영화제(KYFF·Korea Youth Film Festival)에서 고흥 녹동고등학교(교장 장동규) 영화동아리 ‘칸’(지도교사 최혜진) 학생들이 대상(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제에서 광주·전남지역 작품이 대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들은 작품 ‘그들이 사는 세상’을 출품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야외무대 등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 전국 30편의 본선 진출작과 치열하게 경쟁했다고 한다.

‘칸’ 회장 모수빈(여·2년)양은 “시나리오 작업을 한 뒤 촬영과 편집에 각각 2일이라는 시간밖에 없어 너무 촉박했다”며 “대상을 수상해 기쁘지만 시간에 쫓겨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녹동고 학생들이 제작한 ‘그들이 사는 세상’은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본 자신들의 삶을 연애·공부·가정 등 세 분야로 나누어 표현한 6분짜리 영상이다. 청소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창단 불구 수상 영광

촬영·편집 시간 촉박 아쉬워

광주·전남 작품 12년만에 대상

한 남학생이 여러 명 여자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비꼬았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 탓에 매번 자각을 하며 겪는 학생의 고통, 전교 1등이면서도 좋은 대학에 입학한 자신의 형과 늘 비교당하는 학생의 고통이 담겨 있다.

“친구 이야기, 그리고 제 사연들을 버무려 시나리오를 썼어요. 이 시대 청소년들이 쉽게 겪는 고민을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죠.”(모수빈 양)

학생들은 “이 영화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보다 단지 어른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해줄기 바라는 마음이 영상에 담겼다.

모수빈 양이 회원들을 대표해 영화제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영화제작에는 16명의 모든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영화동아리를 만든 3학년 신지



고흥 녹동고등학교 영화동아리 '칸' 회장 모수빈 양(앞줄 왼쪽 첫번째) 등 회원들.

은·정신에 양을 비롯해 2학년 모수빈·김슬아·주소연·이예지 양, 1학년 천예찬·김경모 군, 김소은·남시후 양이 시나리오 작업을 맡았다.

배우와 스텝 역할로는 2학년 이영서·김지원·김남현·강서연 군과 김은빈·김민경 양, 1학년에는 황찬희·김태환 군이 동참했다.

부족한 시간과 촬영장비 등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자”고 서로 격려해 왔다고 한다.

다. 동아리 ‘칸’을 꾸린지 1년 만에 전국 규모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원동력이다.

연출과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 김슬아 양은 “힘들었던 적이 한 두 번 아니었지만 촬영에 들어가면 늘 재미있었고 결과물을 보면 희열을 느꼈다”며 “무엇인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게 좋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중 거니에신산 등반 기록 생생히

영·호남 원정대, 보고서 출간

7개월간 준비·훈련과정 담아

“남릉코스는 어느 외국팀도 밟아보지 못한 미담의 경지. 바로 발아래가 아찔한 절벽이다. 내가 올라서있는 곳은 사람 한명이 겨우 설 수 있는 칼날 능선이다.”(김세욱 등반대장의 등반 일지 중에서)

지난 7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지역 학생산악연맹이 합동으로 등정했던 중국 거니에신산 원정의 기록을 담은 보고서가 출간됐다. 영·호남 합동원정대의 생생한 기록이다.

200여 페이지 분량에 ‘함께 훈련하고 준비하고 오를것했던 거니에신산’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보고서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개



월여 걸쳐 구성회의부터 대원 개개인의 준비과정 및 훈련, 업무분장 등의 모습들이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거니에신산은 중국 사천성에 자리하고 있는 해발 6204m의 만년설산. 영·호남 합동원정대가 도전했던 남릉코스는 공식 등정기록이 없을 정도로 난코스라 알려져 있다.

김경자 합동원정대 추진위원장은 “대원들의 소중한 경험과 노력의 결실이 담겨 있는 책이다”며 “후배 산악인들이 다음에 이 산에 오를 때 자료를 바탕으로 소홀함없이 등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운암초 ‘불조심 어린이 마당’ 전국 1위

광주시소방안전본부 ‘제16회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에서 광주 운암초등학교 학생들(5학년 2반)이 전국 1위(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를 차지했다고 28 일 밝혔다.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지난 1997년부터 ‘안전의식은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안전처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주관해 초등학교 5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실시된 예선을

거쳐 각 시·도 대표로 선정된 18개 초등학교에서 5학년 453명이 참여해 화재 예방과 소화반야, 인명구조와 구급분야, 생활안전분야 등 소방안전식에 대한 문제를 풀었다.

마재운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어린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 안전 지킴이 양성을 위해 다양한 소방안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해남서초등 김한빈 양 한식조리기능사 합격

“유명한 셰프가 되는 것도 좋지만 요리에만 집중하는 실력파가 되고 싶어요. 실력을 쌓은 후 음식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푸드 칼럼니스트로 ‘요리의 세계’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해남서초등학교 6학년 김한빈(여·12) 양이 지난달 치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단의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한식 조리기능사는 합격률이 3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통과하기 힘든 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요리 경력자들도 합격이 쉽지 않지만 한빈양은 1년여 준비 끝에 필기와 실기를 모두 통과했다.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도 초등학교



난해 해남에 문을 연 요리학원에서 조리사 자격증 도전을 시작했다.

김양은 “시험 준비하느라 손도 여러번 베고, 힘도 들었지만 요리할 때 제일 행복하다”며 “요리로 가족을 즐겁게 해 주었듯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의 합격은 한순에 꼽을 정도로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2~3학년 때부터 직접 요리를 해 가족들에게 선보이곤 했다는 김양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요리학원에서 조리사 자격증 도전을 시작했다.

김양은 “시험 준비하느라 손도 여러번 베고, 힘도 들었지만 요리할 때 제일 행복하다”며 “요리로 가족을 즐겁게 해 주었듯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해남=백희성기자 dia@

국립광주과학관 ‘맘인사이언스’ 입학식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은 28일 ‘맘인사이언스’ 입학식을 진행했다.

오는 10월26일까지 5주에 걸쳐 진행되는 ‘맘인사이언스’는 학부모 25명을 대상으로, 광주과학관에서 운영 중인 3D 프린터·CSI 과학수사대·테마교육실 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참가자들이 과학의 원리를 직접 배우고 체험한 뒤 자녀들에게 다시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녀 교육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강신영 관장은 “자녀의 과학교육에 좋



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점차 늘려 광주과학관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김남기 서화가 담양서 사군자그리기 시연



김남기 서화가(광주도시공사 전문위원)가 28일 자신의 초대전(10월 29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 앞에서 사군자 그리기를 시연하고 있다.

<김남기 서화가 제공>

박창순 광주소방항공대장 1000만원 장학금



박창순 광주시소방본부 소방항공대장은 지난 27일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재)룩수장학회에 광주지역 소방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충효국민운동본부 광주지부, 충효인성 강의



충효국민운동본부 광주지부(지부장 황일봉)는 지난 26일 광주 정광고등학교 1학년(437명)을 대상으로 충효인성 강의를 진행했다.

<충효국민운동본부 광주지부 제공>

광주 북구, 행정정보연찬회 장관상



송광운(오른쪽 세번째) 북구청장 등이 28일 북구청장실에서 제33회 지방행정 정보화연찬회 행사부 장관상(기관상)과 직원 개인상 수상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하축(충남 서산 치기공사 대표)·이혜숙씨 장남 원범군 정영수(전남대 부동산학 전담강사)·황해성씨 장녀 다은양=10월3일(월) 오후 1시 충남 서산시 아르델레딩컨벤션, 당일 오전 9시 광주시 남구 빛고을교회(백운광장 버스정류장)·9시30분 전남대 치과병원 앞 전세버스 출발.

▲김준호·신옥자씨 장남 현진군 안숙·정진아씨 차녀 현원양=10월8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송정중앙교회.

등문회

▲비야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석원) 한마당 체육대회=10월3일(월) 오전 10시 30분 모교 대운동장, 문의 010-3624-2378.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최장열) 월례회=10월 5일(수)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화랑궁회관 062-224-1800.

알림

▲월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치료 발달·안정성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 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

522-9976.

▲화순 호사량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동반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광주 동구자원봉사센터 재능봉사단 양성 교육생 모집=10월12일(수)까지 주 1~2회 봉사활동 가능한 남·녀 시민 모

집, 동화구연·풍선아트·네일아트 등 10월 중순 이후 교육사자, 문의 062-228-1365.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 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

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부음

▲박은진씨 별세 김혜리·나나씨 모친상=발인 29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8분향소 062-231-8908.

▲김인식씨 별세 홍호·홍희·금희·영희씨 부친상 정영숙씨 시부상 이찬화·정기석·김광현씨 방부상=발인 29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尙加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김성군 남(남/88세) 子/子婦 : 김태훈/정성숙, 태준/박지영 女/婿 : 김병자/박원호, 경자/지정석, 현자/김태신, 경희/정영수 孫 : 김성진, 혜진 • 발 인 : 9월 30일 • 장 지 : 장충동선영	301호 故조갑배 남(여/92세) 子/子婦 : 최성갑/이정심, 성원/박은희, 혜영/정지숙, 상영 女/婿 : 최미영/김두영, 미조/박태영 孫 : 최용운, 진석, 간수, 정수 • 발 인 : 9월 30일 • 장 지 : 임실송곡원
402호 故임해심 남 (여/72세) 子/子婦 : 최현희/이순수, 민희/정혜림 孫 : 최지훈 • 발 인 : 9월 29일 • 장 지 : 영락공원	
孝 金호 장례식장 대피사구 제길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